



성명 : 박예원  
학과 : 미술치료학과  
부서 : 교양교육진흥센터

# 핵심역량 증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 한국어의 이해

저는 종종 학과 후배들에게 '어떤 교양을 듣는 게 좋냐'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에브리타임이라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 '꿀교양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들 또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은 듣고 싶은 교양, 좋은 교양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좋은 교양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양이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편한 교양입니다.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고, 출석 확인을 잘 하지 않고, 과제가 없고, 팀플이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양을 위한 교양입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양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하고, 실생활과 연계하여 생각해 본 적 없는 주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차원적 단순 이론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편한 교양'이 아닌, '교양을 위한 교양'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양 교육에 있어서 크게는 6가지, 세분화하여 총 12가지의 핵심역량을 제시합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 수강한 한국어의 이해가 단순히 핵심역량이라는 틀에 맞춘 것이 아닌, 실제로 핵심역량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의 이해는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이해력, 소통 능력,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강의입니다. 강의를 수강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첫째,**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한국어의 이해의 과제 중에 대중매체 속의 한국어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제이기 때문에 분량을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고민하고 실태에 대하여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요즘 대중매체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탄생하고, 소멸하고, 변형되는 줄임말과 신조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를 쓰는 것이 당연한 저는 대중매체 속 한국어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강의를 통하여 사회 속에서 당연한 것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종합적 이해력입니다. 강의 주차 후반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에 저는 과제를 인지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상호간의 피드백을 주고받고, 기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다양한 시각에서 주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보며 종합적 이해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소통 능력입니다. 저는 제시된 의사소통 자료를 읽고 그에 대해 분석하여 보완점을 작성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대본의 형식으로 주어진 다양한 인물들의 대화를 읽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는데, 보통 우리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보완할 점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며 올바른 소통에 대한 지식을 얻고, 적용해 보면서 소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면서 상호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했는데, 이때에 강의를 통해 습득하고 가상의 상황에 적용했던 지식을 실제 소통 상황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소통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넷째,** 글로벌 역량입니다. 한국어의 이해라고 한다면 단순히 한국어의 역사나 구성 체계만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당 강의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입각한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이해를 들으면서 공용어나 링구아 프랑카 등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또한 과도한 민족에 대한 강조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현시대에서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역량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글로벌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무의식중에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이해라는 강의를 통하여 네 가지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킨 핵심역량을 토대로 2학기에 들어서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중 다섯 가지에 참여하고, 모니터링단에 지원하여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학과 내 전공체험 및 자유학기제를 5번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교양에서 핵심역량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대학 생활 중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넓혀가는 것이 진정 교양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서 보다 발전적이고 활동적인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은 후배가 있다면, 한국어의 이해라는 교양을 꼭 들어 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성명 : 우수리  
학부 : 바이오산업융합학부  
부서 : 교양교육진흥센터

# 핵심역량 증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 모바일 앱 만들기

2년 휴학을 마치고 복학을 하여 현재 교과과정을 이수중인 24살 2학년 우수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먼저 소개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휴학 전 해당 과목 교수님을 정보화 실무라는 과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 흔히 컴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저였기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해 수업은 잘 마무리 되었으나 실제로 학교 교양 시간에 배운 것을 어딘가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휴학을 했고 저는 당시 관심 있었던 쇼핑몰, 마케팅의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피팅 모델로 활동하며 간간히 생활비를 벌었던 저에게 수많은 미팅 중 제가 기본 컴퓨터 활용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한 후 아무 경력이 없었던 저는 기본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중에도 교수님께서 간간히 알려주신 팁들을 기억해내어 일을 곧잘 처리할 수 있었기에 팀에서도 금방 자리를 잡고 1년간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휴학 때 배웠던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학하며 첫 시간표를 짜 때 자연스럽게 2년 전에 감사했던 교수님들의 수업을 먼저 찾게 되었고 쇼핑몰 어플을 만들자고 직원들 사이에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서 모바일 앱 만들기라는 어플을 수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운 것에 한해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었던 저에게 어플을 만드는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은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여 필요한 것을 배치하는 것 또한 꽤 오래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 실행했을 때는 되돌리는 방법도 어려워 주변 동생들에게 도움도 많이 요청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쇼핑몰 관련 어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업일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폰을 흔들면 음성을 읽어주는 어플부터 여행 관광지 소개 어플들은 제게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써 2학기의 반을 보낸 지금 저는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배운 것에서 응용을 하여 제가 필요한 어플의 방향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실행 결과치들을 블록을 쌓는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의 코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씩 응용하다보니 휴대폰을 흔들면 다른 상품을 보여주는 어플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해 쇼핑몰 어플에서도 음성 지원이 되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었고 요즘 유행하는 이상형 찾기 어플처럼 몇가지의 질문을 통해 개개인에게 옷을 추천해줄 수 있는 기능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수업시간에 배운 것에서 주제만 바꾸고 글자만 바뀌도 가능한 것들이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과 별개로 제가 봐왔던 어플들은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보니 조금만 더 복잡하게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 뿐만 아니라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심리테스트처럼 알고리즘을 잘 짜서 목적, 취향 여러 가지의 문답을 통해 맞춤 코드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보야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학점을 채우고자 시작했던 교양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사실들을 일상 생활부터 미래 취업,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을 할때도 순서를 정하거나 새로운걸 도전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여겨왔는데 이번 학기를 통해 조금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졸업 전까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수강하게 되는 많은 교양 과목들에서 이렇게 실생활 활용법을 찾고 또 점점 더 발전해나가는 태도를 통해 더 의미있는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과목명 ]  
한류와 중국 대중문화

[ 수상자 ]  
통상경제학부 서예린



## 핵심역량 증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 [ 수업을 통한 핵심역량 증진 ]

한류의 대표주자인 K-드라마. 성공한 한류 드라마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보편성이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로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성이란 그 드라마만이 지니는 특성을 뜻한다. 대개 시청률이 높게 집계되는 드라마를 살펴보면 보편적 속성이 뛰어난 작품들이 흥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즉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콘텐츠의 유행이 시작된다. 한류 성행의 대표작들은 시청자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해외로 수출되는 콘텐츠인 만큼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요구된다. <한류와 중국 대중문화> 수업은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서구 열강의 침입을 받았다. 이들은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적 역량 강화의 움직임의 단계를 거쳐 근대화되었다. 중국 역시 아편전쟁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침입으로 발발한 대다수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이들의 문화들이 중국 본토에 강제적으로 뿌리내리고 근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근대화 과정에서 민중은 곧 민족을 의미한다. 민중들은 청 정부의 사회체제를 무너뜨렸고 민족 담론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것을 보여준 운동이다. 태평 청국 운동과 신해혁명을 거쳐 본격적으로 민중 중심 문화체제가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근대화 과정에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을 택하여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설립되었다. 실무파에 해당하는 대다수 인물은 숙청되었으며 문화 대혁명을 겪으며 경극 등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된다. 현재 중국은 고전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과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화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 문화를 세계화 시키고자 타국과 소통 하는 것이다. 한류와 중국 대중문화 수업을 수강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전반적인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할 수 있었다. 나는 대학은 합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태껏 무작정 정보를 머리에 욱여 넣었다. 억지로 욱여넣은 정보를 평가 기준에 맞추어 토해낸다. 내가 뱉은 정보는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점수에 의해 나는 줄 세워진다. 우리는 이처럼 정량적 평가로 점철된 시험을 통과하며 십여 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다. 이 긴 시간 동안 나는 지식인이 만들어 낸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욱여넣는 짓대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최형우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이 수업의 콘텐츠 분석 활동을 진행하며 창의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현장분석을 통한 한류 유행의 요인 분석, 문화 융합시대에서의 한류의 역할 분석, 한국인의 한류 인식 및 자세에 대한 재고. 주제를 막론하고 수업 중 진행되는 모든 콘텐츠 분석 활동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획일화된 정답만을 찾지 않는다. 독자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이 수업이야말로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 이해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활동, 시험 방식은 코로나 19시대에 더욱 빛이 났다. 지난 학기 처음으로 실행했던 온라인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웹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실시간으로 내보낸다 한들 사각지대를 비롯하여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를 시도할 방법은 만연했고 실제로 정답만을 찾는 시험에서 다양한 방식의 부정행위가 도래했다. 또 네트워크, 서버 문제로 인해 오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교수님이 진행하는 모든 수업은 정답이 없는 서술형 시험을 본다. 수업의 목표에 맞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문항으로 출제된다. 더군다나 오픈북이다. OMR 카드 마킹으로, 객관식 문제의 숫자에 갇혀 줄 세워지지 않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시험지에 풀어내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님 수업의 시험만큼은 온전히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다.

